〈표 4〉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방안 제안 총괄표

소분류	과제
포괄적접근	-직장에서의 보육지원확충 • 이외 인근 시설 위탁, 보육수당 활용, 법적 지원 기준준수, 지역사회 보육시설 연계
시설 설치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융자금 상한선 조정, 설치기준 탈력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밀집지역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전문경영업체 활용,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시설화 -국공립보육시설 공동설치 후 위탁 활용 -환경개선비 무상 지원
시설 운영	-입소순위 기준 마련 -위탁 기준 마련
보육비용 지원	-표준보육 기준 마련 -지원 주체별 운영비 분담기준 -인건비 지원 방법 개선 •취업모 비율 고려하여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 소규모 시설 인건비 지원 강화, 인건비 지원 기간, 아동기준 등 전면적 개선 -유구비품비 지원 방법 개선 -직장보육시설 국고 지원 병행
보육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내용 강화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역사회 보육과 연계체계구축 -직장보육시설 지원기능 강화

4. 맺는 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사업 추진 시부터 줄곧 강조되어온 주제이다. 최근 수년간 보육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여성근로자 중에서도 수혜대상이 증가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육정책이 보편적 보육을 표방하면서 지역사회 보육정책에서는 취업모를 별도로 배려한 정책 사례는 거의 없다. 앞으로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보육정책 수립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은 그 범주가 워낙 한정되어 있어서 직장여성의 극히 일부가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하나로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큰 정책이며, 최근에 대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실효성도 기대되는 정책이다. 일하는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그 대상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혼 성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 분석

김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2008년 11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156개 국가 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은 1.2명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2-3년간 조금씩 출산율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저출산 국가들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선진국 평균 출산율(1.6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최하의 수준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자녀양육부담이 경감되었고 출산의지가 높아졌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

결혼에 대한 관념이 과거와는 달라져,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엷어지고 혼인연령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출산시기가 늦어지고 자녀수도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삼식 외, 2005)[1]. 이같은 사회적 경향을 보다 분석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출산과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를 2008년 8월~9월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결혼과 자녀출산,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최근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의식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율제고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2]

1. 조사의 개요

가. 표집 및 조사방법

1) 이삼식 외(2005). 2006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본 원고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발간한 김은설 · 최혜선(2008)의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사의 결과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2008년 연구과제인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에서 실시된 조사의 일부이다. 전체 조사는 전국의 20~55세 성인 3,747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한 설문완성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표집은 통계청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지역규모와 성인인구수를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이 중 본 글의 분석대상이 된 경우는 미혼 성인으로 총 59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조사 참여자 특성

조사 대상인 미혼 성인 598명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247명으로 41.3%, 여성이 351명을 58.7%를 차지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304명(50.8%)으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 261명(43.6%), 군지역 33명(5.5%)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27.7세(표준편차 5.9세)로 최연소가 20세, 가장 연령이 높은 조사 참여자는 53세였다. 월소득을 보면 200만원 미만이 75.8%, 200~300만원 미만이 17.2%, 300~400만원 미만이 3.5%, 400만원 이상이 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19.2%, 전문대졸 26.6%, 대학재학 이상이 53.7%였다.

2. 조사 결과

가. 미혼 성인의 결혼 의향

응답자 총 598명의 7.5%인 44명이 결혼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n=351)만 보면 10.3%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20대 여성(n=272)은 5.9%, 30대 여성(n=64)은 20.3%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반면 남성(n=247)의 경우는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이 3.6%에 지나지 않았고 20대 남성(n=169)은 3.0%, 30대(n=67)는 4.5%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미혼여성은 10명 중 1명 이상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30대 성인 미혼 여성의 결혼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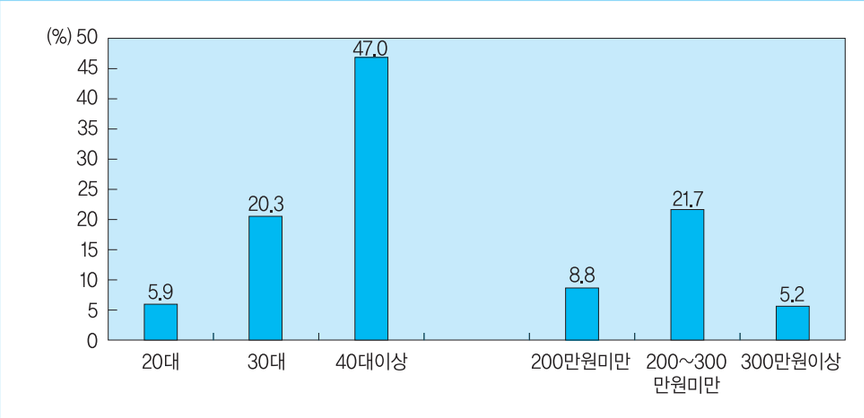
학력이 높고 직업을 가진 여성이 많아져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30대 미혼 여성의 20%가 결혼 의사가 없고 소득이 높은 미혼 여성일수록 독신의사가 높은 것은 (월소득 200만원 미만 8.8% vs. 200~300만원 21.7%가 결혼의향 없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그림1] 참조).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의식이 조사결과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이라는 문제점과 관련시켜보면 소득이 높은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1〉 향후 결혼 의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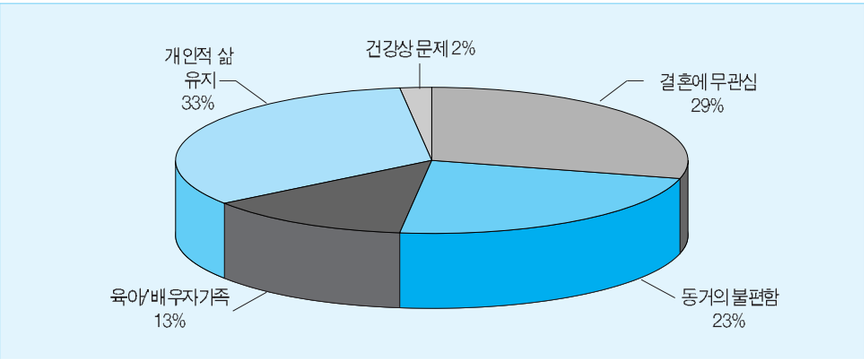
구 분	1~2년 내에 할 계획임	언젠가는 할 생각임	하지 않을 것임	계
전체	19.9	72.6	7.5	100.0(598)
성별				
남성	21.5	74.9	3.6	100.0(247)
여성	18.8	70.9	10.3	100.0(351)
연령별				
20대	15.4	79.8	4.8	100.0(441)
30대	34.4	53.4	12.2	100.0(131)
40대	24.0	48.0	28.0	100.0(25)
50대	0.0	0.0	100.0	1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5.2	77.5	7.3	100.0(453)
200~299만원	35.9	53.4	10.7	100.0(103)
300~399만원	42.9	57.1	0.0	100.0(21)
400~499만원	18.2	81.8	0.0	100.0(11)
500만원 이상	25.0	62.5	12.5	100.0(8)

자료: 김은설 · 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그림 1] 연령별/소득별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여성의 비율(n=351)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진 응답자 4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해보면 개인적 삶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가 33.3%로 가장 많았고, 아예 결혼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28.9%, 타인(배우자)과의 동거가 힘들 것 같다는 응답도 22.2%였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자신의 개인적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유지와 그에 대한 부담으로 미혼의 생활과 다른 기혼의 생활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기혼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한 넓혀주는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결혼 의사가 없는 이유

나.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녀 출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4.3%가 '자녀를 낳는 것은 꼭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고 58.4%가 '자녀는 가능하면 낳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하여 92.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가능하면 낳지 않은 편이 좋다는 응답은 2.0%였으나 출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4%로 오히려 높았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미혼 성인의 34.3%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녀를 갖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으며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과거만큼 지배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혼 성인의 7.4% 정도는 자녀를 갖는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20대보다는 30대에서, 소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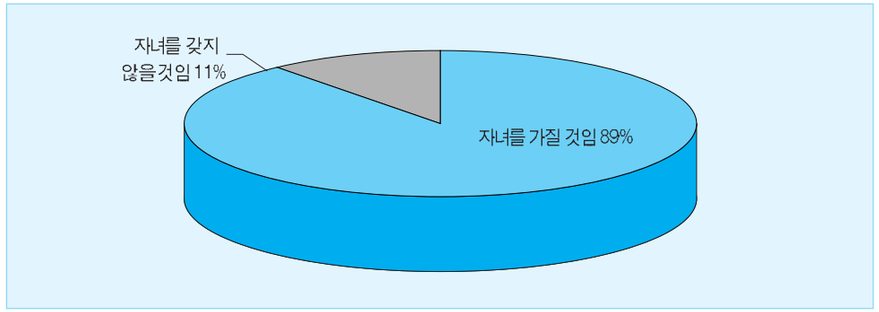
구 분	자녀를 낳는 것은 꼭 필요	가능하면 낳는것이 좋음	가능하면 낳지 않는 것이 좋음	자녀를 낳을 필요 없음	계
전체	34.3	58.4	2.0	5.4	100.0(598)
성별					
남성	38.9	55.9	1.2	4.0	100.0(247)
여성	31.1	60.1	2.6	6.3	100.0(351)
연령별					
20대	37.6	57.1	1.4	3.9	100.0(441)
30대	27.5	62.6	2.3	7.6	100.0(131)
40대 이상	8.0	60.0	12.0	20.0	100.0(26)
월 소득별					
200만원미만	36.6	56.3	2.0	5.1	100.0(453)
200~299만원	24.3	68.0	2.9	4.9	100.0(103)
300~399만원	33.3	52.4	0.0	14.3	100.0(21)
400만원 이상	31.6	63.2	0.0	5.3	100.0(19)

자료: 김은설 · 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자녀 출산 의향

조사에 참여한 미혼 성인(598명)의 89.1%가 결혼을 하였을 경우 자녀를 갖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10.9%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던 7.5% 응답자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해 보면, 결혼의사를 가진 미혼 성인 중 6.1%가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미혼 성인이 100명 중 11명이고 나머지 89명 중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는 의향을 가진 경우가 5~6명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출산과 자녀양육의 의지를 모두 가진 미혼 성인은 100명 중 83~84명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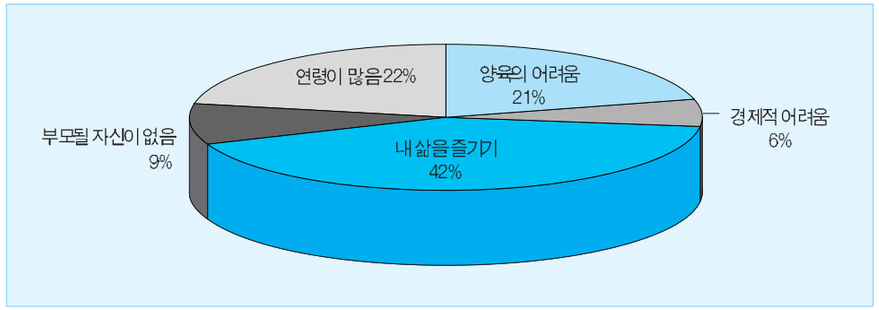
미혼 성인의 결혼 후 자녀 출산 의지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92.3%가 자녀를 갖겠다고 답하였으나 여성은 86.9%만이 자녀를 원하여**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은 7.7%만이 자녀 출산의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성은 그보다 훨씬 많은 13.1%가 자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림 3] 결혼시 자녀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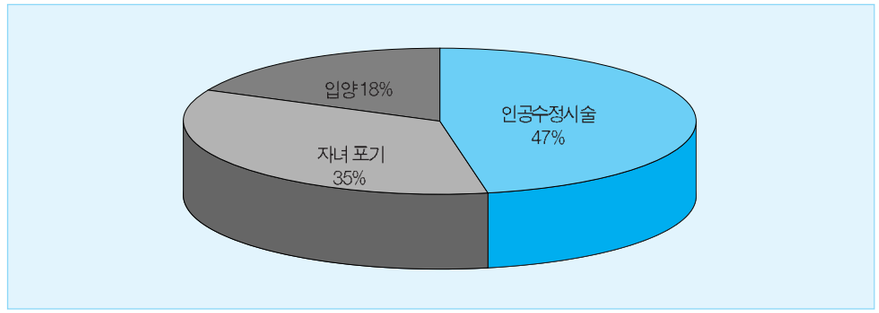
결혼하여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이유는 '자녀보다는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가 되기에 연령이 너무 많아서' 21.5%,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0.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미혼자의 대부분이 연령이 많은 것을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보다는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녀보다 본인의 생활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는 같으나 **여성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부모가 되기에 연령이 많아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가 21.1%를 차지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결혼시 자녀 출산 의사가 없는 이유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의 행동을 예상했을 때, 전체의 47.1%가 '시험관 시술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임'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50.5%가 '시험관 시술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임'이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의 47.4%와 40대의 77.8%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겠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임신이 불가능할 때의 선택

라. 자녀수 계획

결혼을 하였을 경우 계획할 수 있는 자녀의 수로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2명을 계획하고 있다' 에 61.3%, '3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에 13.4%를 보인 반면에 30대는 '1명을 계획하고 있다' 가 31.9%, 2명은 55.8%가 응답하여 20대보다는 2명의 자녀를 계획한다는 비율이 낮았다. 이 비율은 40대가 되면 현저하게 낮아졌다. 결혼이 늦어지고 30대 자녀출산이 많아지는 최근의 경향을 생각하면, 30대 응답자의 32%정도가 자녀를 1명만 갖겠다고 응답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쉽게 높아지기 힘든 일이 될 것이란 예측을 하게 한다.

〈표 3〉 미혼자의 향후 자녀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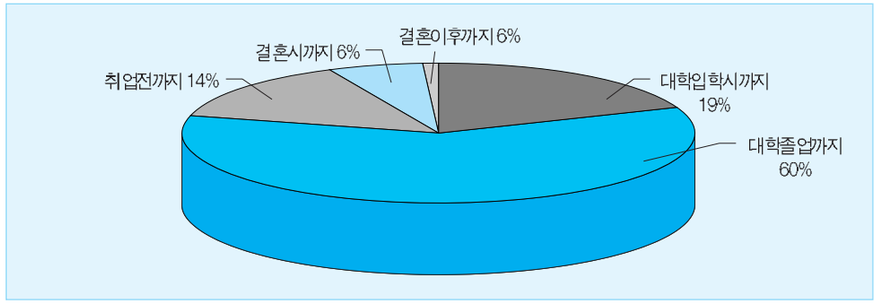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계
전 체	27.6	59.5	12.9	100.0(533)
성별				
남성	25.4	58.3	16.2	100.0(228)
여성	29.2	60.3	10.5	100.0(305)
연령별				
20대	25.3	61.3	13.4	100.0(411)
30대	31.9	55.8	12.4	100.0(113)
40대	77.8	22.2	0.0	100.0(9)

자료: 김은설 · 최혜선 (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마.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대학졸업까지' 로 59.7%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입학까지' 도 19.2%로 상당히 높이 나왔고 다음은 '취업전까지' (14.7%)였으며, 결혼시까지나 평생이라는 응답은 매우 소수였다. 그러므로 미혼인 성인들은 74%정도가 대학졸업 및 그 이후 취업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의 한계

3.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 및 출산 의식 조사의 결과 분석이 출산율 제고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여성, 특히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혼 여성 전체 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였고 30대 미혼 여성은 20.3%였다. 학업과 직업 생활로 인해 30세 이후 만혼이 출산율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현상은 여러 세월을 통해 조금씩 축적되고 변화된 여성사(女性史)의 긍정적 결과이므로 결코 뒤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20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어렵다면 30대 결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들을 보면 결혼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개인적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희생되는 개인적 삶을 사회가 최소화해 줄 수 있다면 결혼에 대한 30대 미혼여성의 부정적 태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가정을 이룬 부부간의 책임과 의무는 평등하다는 의식이 현실 사회에 뿌리박을 수 있게 되어, 회사이든 학교이든 어떤 일터에서도 가정이나 가사, 육아가 남성보다는 여성에 우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정착하여 배우자의 본가(시가, 처가)에서도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교육,

계몽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육아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 가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보편화되어, 신뢰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보육제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자녀는 꼭 필요하며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4%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30대의 경우는 27.5%에 불과하였다. 자녀가 갖는 의미, 가치가 부모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겠으나 자신의 일이나 부부생활, 자아실현 등 개인의 사회적 성취만을 중요시하는 풍조 속에서는 자녀 출산의 더 큰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사회적 성취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일이 될 때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가치관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매스미디어, 각종 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의 출산의지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은 7.7%가 출산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나 여성은 13.1%여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이유로 개인생활의 향유 이외에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양육의 어려움)' 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정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이거나 유아교육비 ·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양육수당 등을 통해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양육이 힘든 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양육환경 개선과 양육노동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서 보듯이 30대 미혼 응답자의 32%정도(전체 연령은 28%)가 자녀는 1명만 갖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셋째 자녀 출산 장려책보다는 둘째 자녀 출산에 보다 정책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셋째자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둘째자녀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 자녀 하나를 출산한 가정에서 둘째를 키우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저출산 시대의 육아지원정책

이윤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8년 12월 유아교육정책 · 보육정책을 사회적 이슈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영유아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영유아관련 학계와 사회단체 30개로 구성된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난 5월 7일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조복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와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 내 6명의 지정토론이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제 및 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1. '저출산 시대에서의 육아지원정책' 기조발제 개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사회체제의 존속이나 유지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리 사회는 2002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1.3이하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주 출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5~34세 여성인구가 향후 급감함으로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의 여러 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과중한 육아비용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육아부담은 영유아기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가 대학교육까지 이수해서 어엿한 전문직을 가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영유아기부터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양육부담은 자녀를 더 낳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의 곤란을 지적할 수 있다. 주 출산연령대(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M곡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인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1) 자세한 원고 내용은 본 센터 세미나 자료(2009-01) 「저출산시대의 육아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료집 참조